

東西高速道路(光州~大邱)내년에 着工  
住宅 500万棟 10年목표로 建設——대통령 지시

손대통령은 22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행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東西高速道路에 언급 「1차적으로 光州와 大邱를 잇는 高速道路부터 시작하고 뒤이어 경제성을 고려 全州와 大邱를 잇는 高速道路도 2차적으로 고려하라」고 지시하고 『光州~大邱高速道路를 위해 81년 予算에 200億원 정도를 예상해서 81년내에 着工토록 할 것이며, 經濟企劃院과 建設部는 이 예산배정문제와 建設設計費 약 35億원을 80년도 追更予算과 내년도 予算에 계상하는 문제를 협의하라』고 말했다.

손대통령은 또 『宅地の 적기공급을 위해 저렴한 토지를 물색, 現時價 이상의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정부는 이 토지를 宅地로 조성, 공급자등 실수요자들에게 長期割賦로 売却,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토록하라』고 말하고 『이 계획의 추진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關聯法令의 整備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國民住宅難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現在의 住宅數와 거의 맞먹는 500万户정도의 住宅을 10年建設目標로 매년 公共·民間部門을 합쳐 30~70万户씩 建設해가도록 하라』고 했다.

또 『國土開發計劃은 대부분 公開하고 不動產致當를 노리는 사람은 지역별로 강력히 규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海外建設受注 계속호조, 47億달러 돌파  
72~80億달러 전망, 技能工 1만4천 신규투입

9월25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海外建設受注額은 47億1,1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6%나 증가했으며 總受注額중 91%가 中東에서 이루어졌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 목표 60억 달러 달성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總受注額은 목표의 19~30%를 초과하는 72~8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올해 해외건설로 국내에 들어올 外貨稼得額은 20억 200만달러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호조로 14,700여명의 建設技能工이 신규 투입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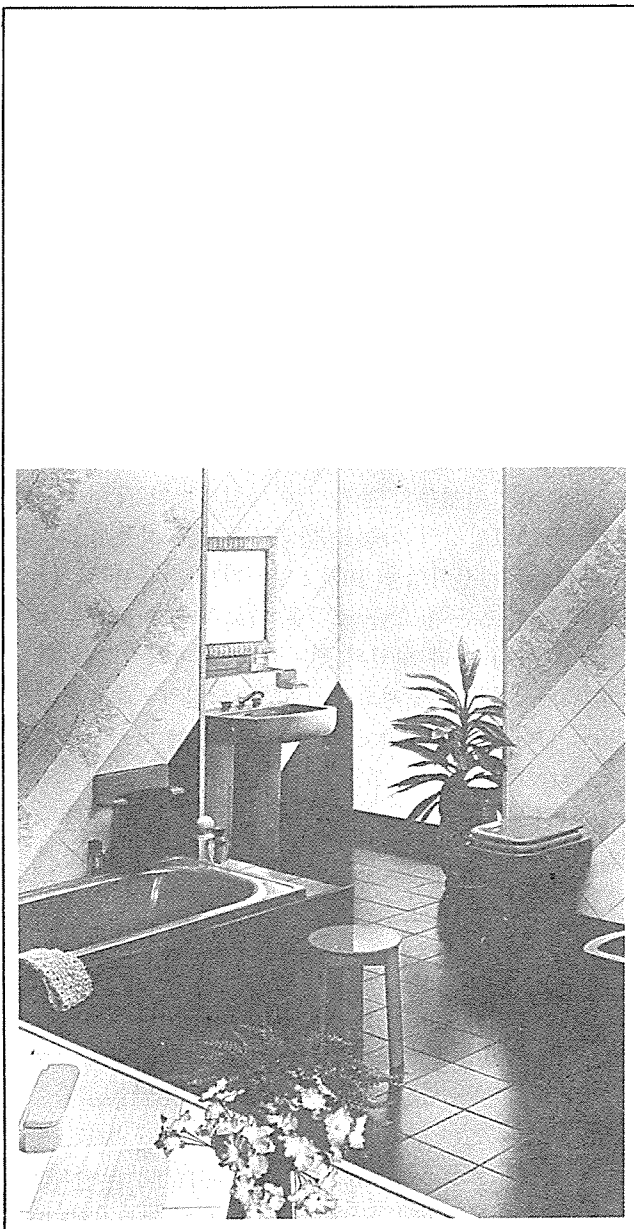
한편 건설부는 앞으로 海外建設促進法을 개정, 지금까지 建設部에서 맡아온 海外建設都給許可를 海外建設協會에 이관키로 했다.

새해予算 7兆5,371億, 올해보다 29.9%增  
成長率 5.5%, 物價上昇率 15%, 輸出 205億 달러

9월26일, 국무회의는 올해 本予算보다 29.9% 늘어난

月間建築情報

'80. 10. 1 — 10. 20



총규모 7조 5천371억원의 81년도 一般會計予算案을 통과하였다. 이와함께 6조 1천529억원의 81년도 特別會計予算案과 5천896억원의 80년도 追更案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國民總生産 實質增加率 5.5%, 輸出은 205억달러(FOB), 輸入 260억달러(FOB), 物價上昇率 15%로 전망하고, 節約予算, 중점과 총평의 조화를 기본편성지침으로 삼아 △防衛와 治安확보, △教育正常화와 科學技術支援, △취약부문 지원중심의 經濟開發등을 예산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企業의 非業務用 不動産 申告 및 処分 등 全대통령——企業體質 強化對策 지시

全대통령은 9월27일,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 기업체질을 획기적으로 강화, 80년대의 민주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企業의 非業務用 不動産을 地方自治團體·住公 및 土開公으로 하여금 強制買入하여 서민 철거민 및 수몰지구 가구용 宅地 또는 工業用地로 개발, ▲財閥 그룹의 系列企業 축소 정리, ▲救濟金融 억제, ▲金融機關 興信管理 강화, ▲企業에 대한 外部監査制度 의무화 등을 즉각 시행토록 하라고 내각에 특별지시하였다.

이날 全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企業體質 強化對策」에 의하면 9월29일부터 10월15일까지 自進申告期間을 설정, ▲金融機關 興信管理대상 主去來企業 1,216個社가 소유하고 있는 不動産, ▲企業主, 系列主 및 大株主와 그 配偶者, 直系尊卑屬, 企業任員 등 특수관계인 명의의 不動産등 일체의 不動産을 主去來銀行의 본·지점에 자진 신고토록 했다.

정부는 申告不動産을 業務用과 非業務用으로 구분, 非業務用 不動産에 대해서는 自進売却을 권장하거나 實勢鑑定價에 의해 現金 또는 債券을 받고 地方自治團體·住公 및 土開公에 強制売却케 하여 서민용 또는 철거민 수몰지구 주민의 移住 宅地나 工業用地로 개발하기로 했다.

### 全羅·慶尙道 9개군,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으로 내년 東亞高速道路 着工에 대비

정부는 9월29일, 光州와 大邱를 잇는 東西高速道路 건설에 앞서, 慶南北·全南北道内の 陝川·高靈·達城·居昌·咸陽·南原·淳昌·潭陽 등 8개군 전역과 長水郡蟠岩面 지역, 4,586km<sup>2</sup>(1억300만평)를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으로 지정 공고하였다.

기준지가고시대상지역의 지정은 基準地價告示를 위한 사전조치이며, 公告日의 時價를 기준으로 地價가 동결케 되는데, 이번 조치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될 東西高速道

路와 관련 路線候補地의 不動産投機化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9개군의 추가지정으로 기준지가 고시 및 고시대상지역은 총국토면적의 26.5%인 26,256km<sup>2</sup>로 늘어났다.

### 서울市 새綜合庁舎 新築移轉, 83년 이후로 地下鉄건설과 上水道해결에 역점을

江南區端草洞에 새로 세우기로한 서울市綜合庁舎 新築計劃이 83년 이후로 늦추어졌다. 朴英秀 서울시장은 9월29일 南惠祐총리에게의 시정보고를 통해 「서울市庁의 江南移轉計劃은 변경은 없으나 경제여건을 감안, 83년까지 끝내려던 新築時期를 늦추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朴시장은 이와함께 「서울大公園建設도 昌慶苑의 動物園移轉만을 계획(81년)대로 추진하고 慰鼎·運動·文化施設의 설치는 재검토하겠다」고 보고 했다.

南총리는 이같은 보고를 받고 「서울시는 地下鉄建設에 총력을 기울이고, 上下水道해결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하고 「서울시가 上下道施設을 위해 요구한 100億원의 起債를 검토해 지원하라」고 배석한 申부총리에게 지시했다.

### 對民關係法令 81년 3월까지 整備 全대통령지시 “民願行政 근원적으로 개선”

全대통령은 9월30일, 관계부처에 「民願業務의 制度的改善方案」을 시달하면서 국무총리 책임하에 민원의 소재를 원천적으로 파악, 對民關係法令을 조속히 제정·혹은 개정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부 각 민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보완조치를 취하며 △이 개선작업을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81년 3월말 이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민원의 원천적 소재파악작업을 10월말까지 行政改革委 주관으로, 민원상담실의 운영개선책 수립에 11월말까지 總務処 주관으로, 각각 마치기로 했으며, 對民關係法令의 改正 및 制定을 위한 준비작업은 行政改革委 주관으로 11월말까지, 그 立法措置는 國家保衛立法會議과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내년 3월말까지 완결하기로 했다.

### 住宅 500萬戶/宅地 3億 6千萬평 조성 81~86년 200萬戶·87~91年 300萬戶 分讓先賣制·宅地開發法제정·基準地價告示 등

金周南 건설부장관은 10월 2일, 81~91年間 住宅 500萬戶를 건설하고 3億 6천 1백만평의 宅地를 조성하며 住

宅 및 宅地분양에 先賣制를 도입하는 내용의 公共住宅建設 및 宅地開發基本計劃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公共部門에서 40%인 200萬戶를, 民間部門에서 60%인 300萬戶를 건설하되, 公共部門에서 제 1차 계획기간(81~86년)에 7~15평규모로 100萬戶를 제 2차 계획기간(87~91년)에 15~20평규모로 100萬戶를 건설하고, 民間部門은 1차기간중 100萬戶, 2차기간중 200萬戶를 각각 건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차관을 統制團長으로 하여 18명의 관계부처 직원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금년말까지 세부방안을 확정,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金장관이 밝힌 住宅建設 및 宅地開發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住宅 및 宅地의 先賣制 = 국가·지방자치단체·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 등 政府機關이 공급할 住宅 및 宅地는 사전에 사업년도·위치·규모·가격·용자제도등을 제시 분양희망자로부터 일정액의 先受金을 받는 등, 신청을 접수.

△宅地開發促進法 制定 = 宅地開發万能地域을 조사, 予定地區로 지정하고 여기에 基準地價를 고시하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都市計劃法·住宅建設促進法등 17개 관련법에서 제정한 절차를 생략, 택지가 부족할 경우 線地를 포함하게 宅地地區로 용도 변경.

△讓渡所得稅의 彈力適用 = 부동산거래의 변화에 기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讓渡稅率을 탄력성있게 적용.

△投入財源 = 제 1차 계획기간(81~86)년중 公共部門에서만 예상되는 住宅建設 및 宅地開發費를 22兆 5千 4百億원으로 잡고, 이 계획추진에 따라, 81년 한해에만 40萬명의 고용유발, 8,000億원의 所得創立, 2兆2,000億원의 生産유발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전국 35개面, 邑으로 승격

내무부 12월부터, 人口 2萬이상 대상

내무부는 10월 7일 인구 2만 이상인 전국 35개 面을 邑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 이들 面을 12월 1일자로 邑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신설되는 邑들은 準都市行政體制를 갖추는데 따라 부읍장을 따로 두게되며 기존 總務·財務·戶兵·産業의 4개 係외에 새마을·社會·建設의 3개 係가 증설되며 지방공무원수도 1개 面당 20명 미만에서 그 2배 수준까지 증원된다.

내무부는 작년에 인구 3만 이상인 기존 5개 面과 都庁所在地이면서도 邑이 아닌 48개 面등 53개 지역을 대거 邑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이번 35개 面이 邑으로 승격되면 全國의 행정구역은 1特別市·1直轄市·38市(41개區)·139郡·204邑·1256面이 된다.

邑 승격대상 面 △京道直(7) = 始興郡 儀旺·蘇來, 廣州郡東部, 高陽郡中部·碧蹄, 南陽郡瓦阜, 坡州郡州內

△江原道(3) = 鐵原郡東松, 旌善郡新東, 三陟郡遠德.

△忠北道(1) = 丹陽郡梅浦.

△忠南道(1) = 端山郡安眠.

△全北道(2) = 沃溝郡沃溝·米面.

△全南道(9) = 麗川郡三日·突山, 長興郡大德·冠山, 莞島郡全日·蘆花, 靈光郡白岫, 務安郡一老, 新安郡智島.

△慶北道(7) = 達城郡城西, 月城郡外東, 迎日郡鳥川·延日, 尚州郡成山, 添谷郡添谷, 蔚珍郡平海.

△慶南道(1) = 梁山郡機張.

△濟州道(4) = 北濟州郡涯月·舊左, 南濟州郡城山·南元.

### 太陽에너지展 개최 (10/8~10/17)

5개국 30개 業体에서 3,000여점 出品

太陽에너지發示會가 10월 8일, 汝矣島機械工業振興會 전시관에서 개막되었다. 綜合에너지 研究所부설 太陽에너지 研究所 주관으로 10월 17일까지 10일간 열린 이번 展示會에는 17개 國內業体 및 미국·일본 등 4개국 13개 業체가 45종 3,000여점을 출품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太陽熱住宅에서부터 太陽光發電에 이르기까지 太陽에너지를 실생활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機資材가 전시되었는데 太陽에너지의 간접적인 이용방법도 다채롭게 소개되었다.

### 서울시, 駐車場整備地區 대폭 축소

住居地域·外廓地域은 해제 방침

10월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開發制限區域등 외곽 변두리지역을 제외한 시내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있는 총 280km<sup>2</sup>의 駐車場整備地區를 住居地域이나 都心外廓地域은 해제하고 4大門안 등 都心圈 業務中心地에만 국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경될 都市計劃 駐車場整備地區는 △4大門안 都心圈, △永登浦都心圈, 江南地域의 加東業務地區, △기타 都市計劃 業務地區등 모두 20km<sup>2</sup>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住居地域이나 都心地外廓地域에는 사실상 주차장시설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都心半徑 10km이내 지역을 비롯한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역이 駐車場整備地區로 묶여있어 業務用 빌딩을 비롯 45평이상 모든 건축물이 駐車場設置義務 대상이 되

어 왔으며, 都心不適格施設物の 外廓移転에도 큰 차질을 빚는 등, 많은 민원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駐車場設置基準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을 모색하여, 2000年代를 향한 서울의 中長期開發構成에 外國의 經驗과 最新 이론을 援引하여 서울의 都市 基本計劃 확정안도 마련하게 하였다.

## 住宅500万户건설에 年2兆5千億원 필요 · 宅地造成에 그린벨트 부분해제 등도——全經聯

全經聯은 10월 9일, 오는 91년까지 庶民住宅 500萬戶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GNP의 3.6~4.0% 수준인 住宅部門 財政投融資규모를 최소한 6% 이상 끌어올려 매년 2兆5千億원 상당의 住宅建設資金을 새로이 투입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住宅部門에 대한 낮은 投資優先順位를 높이고, 宅地造成이 가능한 지역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全經聯은 현재 76.5%에 불과한 전국의 住宅普及率을 1가구 1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이같은 대규모 投資와 아울러 △住宅 下部施設을 中央 또는 地方財政에서 부담, 宅地供給을 원활히 하여 地價上昇을 억제시키고, △유효수요에 의한 住宅供給을 실시해야 하며, △豪華住宅에 대한 富裕稅, 소형 서민주택에 대한 경쟁시장원리, 零細民에 대한 賃貸住宅 체제를 구축하고 △賃貸住宅은 公共財로 규정,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住宅價格을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休日費등 빈곤가계에 전월세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佯月賃契約條件의 모델을 제시하여 빈곤층을 보호하고, △계층간의 住宅循環의 원활화를 위한 용자제도 개선, 주택건설에 저렴한 利子, 宅地造成費 지원등을 장기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物價抑制, 住宅價格 安定등으로 저소득층의 實質所得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울都市計劃 國際세미나 世宗會館서 15개 학자 40여명 참가

2000年代를 향한 서울都市 基本計劃에 관한 國際세미나가 10월13일, 서울世宗文化會館에서 大韓國土計劃學會와 서울시 공동주최로 國內學者 및 15개국 學者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되었다.

10월19일까지 7일간 계속될 이번 세미나는 ▲ 廣域都市開發分野 ▲ 社會經濟開發分野, ▲ 交通計劃分野, ▲ 環境 및 公害分野 등 10개 主題를 놓고 主題發表와 토론을 갖었다.

세미나는 國際的 都市로서의 편모를 보여줄 社會의 都市像을 부각시키기 위해 國內外 專門家와 行政實務者 간의 토론과 共同作業을 통해 中短期的 現안에 대한 방안

## 그린벨트 住宅改築, 9평이내는 申告만으로 · 城南市 建築制限 부분 해제도

10월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10월18일부터 그린벨트 지역내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그린벨트내에 있는 住宅의 政策許可節次를 일부 완화, 邑長의 許可를 받아야 했던 9평내의 政策을 申告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76년 5월 4일 이후 적용되어온 城南市의 建築制限指置를 지난 7일부로 일부 완화, 76년 5월 4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 외에는 新增築이 不許돼있던 조치를 해제, 그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도 新增築을 허용기로 했다.

## 그린벨트 規制는 계속 固守할 것 全대통령 京畿道巡視에서 언급

全대통령은 10월14일 京畿道를 순시, 道政現況과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뒤, 그린벨트에 언급,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철저히 固守할 생각」이라고 말하고『그린벨트는 단 1평이라도 소정 절차를 밝아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 80年代 國土開發, K字軸과 2개 橫軸으로 · 국토개발원의 國土開發長期構想

10월14일 國土開發研究院이 건설부 용역을 맡아 작성하고 있는 國土開發長期構想到 따르면, 제 2차 國土綜合開發計劃期間(82~91)年 △서울~釜山軸은 적정수준을 유지시키되 大田~光州 및 大田~東海를 연결, 新開發軸으로 발전시켜 K字軸이 되도록 하고, △海巧과 麗水를 잇는 기존 東南海岸 工業벨트地域의 확충정비와 함께 光州~大邱~浦項을 잇는 嶺南橫軸을 개발, 2개의 橫軸을 구축하며, △하나의 中心都市를 核을 하여 生産및 生活機能이 완벽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地域生活圈을 形成케 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러한 長期構想은 제 1차 國土綜合開發計劃期間(72~81)이 據點開發을 중심으로 했으나, 제 2차 기간(82~91)중에는 軸 또는 廣域開發을 초점으로 하여 제 3차 계획기간(92~2001)중 본격적 均衡開發을 꾀한다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長期構想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K軸위에 있는 도시가운데 서울과 釜山은 人口 및 産業成長을 둔화시키되 光州·全州·裡里·郡山·大田·江陵·東海·大邱의 成長을 촉진시켜 廣域都市圈으로 개발.

△ 太白과 潮南을 잇는 新開發軸 위의 大田과 光州는 都市型 工業中心으로 육성하되 大田·淸州地區는 섬유·기계 및 食品工業을, 光州地區는 機械·化學 및 纖維工業을 중점 육성.

△ 北坪工業基地를 중심으로 墨潮·三陟방향의 綜型開發을 유도하면서 地域資源에 의존하는 資源型 工業과 金屬加工工業을 육성.

△ 浦項과 麗水를 잇는 東南海岸 工業벨트地域은 기존 工業基地의 集積利益을 살려 확산을 유도.

△ 光州~大邱~浦項의 嶺湖南軸은 東西間 産業機能의 연계화를 유도하고 德裕山·智異山 및 伽倻山의 위락자원 이용을 촉진.

△ 地域生活圈을 반경 30~50km 크기로 4~6개 郡을 묶어 生産·教育·醫療·流通·慰樂·文化 및 기초생활 시설을 고르게 배치.

### 신규발주 격감으로 덤핑受注 자행 最低入札制 개선하여 敷札制를 희망

10월1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판납공사 발주량은 총 952건으로 전년 동기 1,170건에 비해 크게 줄고 있는데, 이같은 신규발주격감현상은 하반기에 들어 더욱 두드러져 7~9월은 월평균 100건 이하로 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가 치열한 경쟁끝에 예정가의 85%선에도 못미치는 가격에서 낙찰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는 예정가의 7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덤핑입찰이 자행되고 있다.

또한 신규공사가 줄어들음에 따라 서울의 대기업들이 지방에까지 침투, 지방 중소기업체의 도급영역을 잠식하는 사례까지 있어, 중소기업보호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요

구되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같은 덤핑 수주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最低入札制를 예정가의 일정선 이하의 투찰은 무효로 처리하는 敷札制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政府工事의 敷札制 실시는 작년부턴 관계당국 간에 논의대상이 되고있으나 건설부·조달청 등 집행기관은 지지하고있는 반면, 재무부가 國庫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新築빌딩·아파트에 電話交換室 설치의무 채신부가 賃貸하여 電話交換施設을 설비

10월14일 채신부에 따르면, 계속적인 電話增設에도 수요에 못따라 적체가 늘어나자 電話의 다량 수요처인 고층빌딩이나 아파트 등지에는 별도로 集團文換施設을 갖추어 적은 회선으로 많은 가입자를 수용키로 하였는데, 늦어도 年内에 法的인 준비를 끝내고 내년부터 新築한 건물 등에는 集團自動電話施設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채신부는 이를 위해 건설부·서울시등 관련부처와 협의의 갖고 있는데 아파트와 고층빌딩은 新築許可時 의무적으로 건축물내에 집단자동전화를 설치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空間을 확보토록해, 이를 채신부가 賃貸形式으로 빌어 集團電話交換施設을 설치키로 했다.

集團自動電話施設은 1회선이면 7개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어, 아파트團地등에는 적은 회선으로 많은 가입자를 수용, 적체가 심화된 지역에 큰 효과를 얻을것으로 보고 있는데, 집단자동전화 가입자는 이주 때에도 해당전화를 이전할 수 없어 入性者는 언제나 전화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채신부는 이와함께 電子交換機 설치로 단기에 전화보급이 어려워 적체가 더욱 늘어날것에 대비, 수용용량이 적고 단기 공사가 가능한 농어촌 전화의 都市地域 설치와 電話局간의 여유전화는 적체가 심한 지역에서 越局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

新 刊  
『窓 戶』

韓國建築大系：I

著 者：張 起 仁  
發 行 處：普成文化社  
서울 鍾路區 貫鉄洞 19-21  
電話(73) 7244 (74) 4365  
登錄番號 ㉠ 第 1 - 599號  
印刷 1980年 9月 1日  
發行 1980年 9月 5日  
價 格：4,500원

祝  
發 展

(株) 文基綜合造景콘설탄트  
科學技術處登錄 299 서울마포구동교동 163-20  
造景專門技術用役 電話：32-0324  
○ 団地計劃 34-3024  
○ 造景計劃 設計  
張 文 基 (造景技術士)